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73

▶ **74회 예고**
마힌다와 상가밋따는 대비별궁에서만 산다. 왕궁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아쇼까왕에게 승가 보호자에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려면 아들과 딸을 출가시키라고 조언한다. 두 남매는 아쇼까왕의 권유로 출가를 결심한다.



# 마힌다, 아버지 아쇼까왕을 만나다

밤새 빠딸리뿌뜨라성으로 올라왔던 안개가 성 밖 들판과 구릉으로 물러났다. 아침 해가 동그란 은화처럼 허공에 떠 있었다. 햇살이 안개를 투과하면서 대지의 기온은 조금씩 올라갔다. 남문 밖에는 군데군데 화톳불을 피운 흔적이 거무튀튀했다. 새벽녘에 외성 밖에서 사람들이 불을 쬐느라고 피웠던 흔적이었다. 외성 성문을 경계하는 군사들이 남문 밖에 모였다. 사람들을 검문하기 위해서였다. 어제 늦은 밤에 남문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밤을 새운 사람들이었다. 남문을 지키는 군사 한 명이 두 남녀를 검문했다.

"어디서 왔소?"

"베디샤나가르에서 왔습니다."

"그곳이라면 망해버린 아반띠국 땅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더 조사할 것이 있으니 잠시 저쪽에 가 있으시오."

두 남녀는 변방에서 왔다고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었다. 잠시 후 늙은 수문장이 두 남녀를 부르더니 물었다.

"두 사람은 어떤 사이인가?"

"남매입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저는 마힌다라고 합니다."

여자도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저는 상가밋따입니다."

"성 안에 무슨 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대왕님을 뵈러 왔습니다."

수문장이 어이가 없다는 듯 마힌다를 쳐다보며 말했다.

"뭐라고? 대왕님은 아무나 알현할 수 없는 분이라네, 그러니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거네."

"대왕님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수문장이 혀를 차면서 말했다.

"쯧쯧, 그 말을 누가 믿겠나!"

수문장이 두 남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자 경비대장이 다가왔다. 경비대장은 아침 순찰을 돌다가 남문에 와 있는 중이었다.

"수문장, 무슨 일이오?"

"이 젊은 사람들이 대왕님을 뵙겠다고 하는데 황당합니다."

"알겠소. 내가 검문해 보겠소."

경비대장이 마힌다와 상가밋따를 데리고 남문 안쪽 경계병 숙직실로 데리고 갔다. 경비대장은 마힌다의 얼굴이 아쇼까왕을 어딘지 닮은 것 같아 신중하게 대했다. 두 남매는 경계병 숙직실에서 검문을 받았다. 경비대장이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웃자인 부근 베디샤나가르에서 왔습니다."

"웃자인이라면 대왕님께서 젊은 시절에 계셨던 곳이지."

"몇 살인가?"

"저는 열여섯 살입니다."

"열여섯 살이라고?"

경비대장이 손가락을 굽어보면서 나름대로 계산을 했다. 현재 아쇼까왕이 35세이고, 웃자인 부왕일 때가 18세였으니 나이로 치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맞을 것도 같았다. 그러나 경비대장은 두 남매가 아쇼까왕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도 나는 그대를 믿을 수 없다네. 함부로 알현시켰다가 사고가 난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지. 그대가 아들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는가?"

"대장님, 대왕님은 저희들을 바로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이니까요."

"나는 실수를 하고 싶지 않다네. 대왕님께 가서 보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니까."

마힌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낙심했다. 그러자 그때 상가밋따가 경비대장에게 말했다.

"대장님, 제가 딸이라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상가밋따가 자신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뺐다.

"이 반지는 대왕님께서 웃자인을 떠나실 때 제 어머니께 증표로 주었던 것입니다. 이 반지를 보시면 대왕님께서 바로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 그 반지라면 지금 바로 대왕님께 가서 보고하고 오겠네."

코끼리 상아로 만든 하얀 반지였다. 공작새가 음각된 상아반지는 아무라도 낄 수 없는 보물이었다.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라에서 상아반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금반지나 은반지보다 구하기 어려운 것이 코끼리 상아반지였다. 코끼리 상아반지를 끼고 있다면 왕실 귀족이나 부호들이 틀림없었다. 그래도 마힌다와 상가밋따는 초조해 했다. 상가밋따가 말했다.

"오빠, 아버지가 반지를 기억하실까?"

"나도 그 점이 불안해. 기억을 못하시면 우리는 경비대장님을 속인 죄로 감옥에 갈지도 몰라."

경계군사들이 숙직실을 들락거렸다. 불안해하는 마힌다와 상가밋따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피식 웃기도 했다. 두 남매의 옷은 먼 길을 상인들 무리와 함께 오는 동안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런데 그때, 경계병 숙직실 바깥에서 북소리가 둥둥둥 들려왔다. 숙직실 안의 분위기가 돌변했다. 북은 왕이 순행을 떠날 때나 치는 악기였기 때문이었다. 경계병들이 일제히 밖으로 나가 도열했다. 말을 탄 경비대장이 선두에서 달려오고 뒤에는 친위대 군사 서너 명이 북을 두드리면서 오고 있었다. 잠시 후에는 일산이 달린 아쇼까왕 전용마차와 또 한 대의 빈 마차가 보였다. 경비대장이 소리쳤다.

"대왕님이시다! 군사들은 제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경계를 서라!"

이윽고 아쇼까왕이 마차에서 내려 마힌다와 상가밋따에게 손짓을 했다. 두 남매는 아쇼까왕에게 달려가서 땅바닥에 엎드렸다. 상가밋따는 아쇼까왕을 보자마자 흐느꼈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고개를 들라. 너희 얼굴을 보고 싶구나."

"저희도 대왕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오, 마힌다는 청년이 됐구나. 상가밋따는 처녀가 됐고."

"네 어머니는 왜 오지 않았느냐? 이 상아반지는 내가 네 어머니한테 준 것이 맞다. 웃자인을 떠날 때 주었지."

"빠딸리뿌뜨라로 일찍 오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간병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베디샤나가르를 떠나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눈을 감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쇼까왕은 짧게 비명을 지르며 이마를 짚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인이 숨을 거두었다는 말에 아쇼까왕은 잠시 비틀거렸다. 경비대장이 달려와 아쇼까왕을 부축했다.

"대왕님!"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웃자인에 가족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구나."

아쇼까왕이 탄식을 하자 경비대장이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왕궁으로 돌아가시어 정담을 나누소서. 여기는 성문 안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입니다."

아쇼까왕은 경비대장의 말을 받아들였다. 전용마차에 올라 눈을 감았다. 마힌다와 상가밋따는 뒤따르는 마차에 탔다. 어느새 안개가 말끔하게 걷히어 강가강처럼 푸른 하늘이 드러났고, 아침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외성 안은 성민들이 북적거렸다. 저잣거리의 가게들은 온갖 물품들로 넘쳐났다. 염소와 개, 소들도 늦잠에서 깨어나 저잣거리를 어슬렁거렸다. 외성을 지나 내성 성문을 지났을 때야 거리는 깨끗하고 조용해졌다. 강가강 쪽의 언덕에 왕궁 건물들이 보였다. 마힌다와 상가밋따는 꿈을 꾸는 것처럼 황홀해했다.

두 남매는 아쇼까왕의 접견실로 경비대장의 안내를 받았다. 아쇼까왕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접견실로 들어왔다.

"너희들은 대비님도 뵙고 조카들도 곧 만나게 될 것이니라."

아쇼까왕이 말한 조카들이란 꾸날라 부왕비가 낳은 아들 삼빠딘과 다샤라타였다.

"대왕님, 아직은 어리둥절합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보거라. 내가 네 아버지가 틀림없느니라."

"저도 대왕님을 뵙는 순간 누가 뭐래도 '이분이 아버지이시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마힌다는 나를 닮았고 상가밋따는 네 엄마를 닮았으니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어머니께서는 반지를 애지중지 아끼셨습니다."

"이 반지가 없었더라면 너희들을 만나지 못할 뻔했구나."

"어머니께서 반지가 있어야 대왕님을 뵐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잘 간수하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데비였지.'

아쇼까왕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허전한 표정을 지었다. 첫사랑의 데비가 그리워지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네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허전하기 그지없구나."

아쇼까왕은 웃자인을 떠날 때 데비를 설득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때 데비는 자신은 바이샤 출신이므로 빠딸리뿌뜨라 왕실의 왕비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동행을 거부했던 것이다. 데비의 아버지 베디샤데바 선조는 까뻴라국이 망할 때 머나 먼 남쪽인 베디샤까지 내려와 바이샤로서 상업으로 생계를 해결했던 샤까족이었던 것이다. 샤까족 후예인 베디샤데바 역시 상인으로서 무역으로 부를 쌓았고 마침내 베디샤 상인수장이 되었는데, 아쇼까가 부왕으로 내려왔을 때 그를 도왔던바, 그 인연으로 아쇼까와 데비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다. 베디샤데바는 샤까족이었으므로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을 신봉했고, 산치에 개인 절을 지었을 정도였다. 마힌다가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산치동산에서 대왕님을 기다리셨습니다. 대왕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 네 어머니의 성품으로 보아 내 말을 철석같이 믿었을 게야."

실제로 데비는 왕비가 아닌 '부인'의 신분으로 만족하며 산치 절에서 아쇼까가 잘 되기를 기도하며 살았는데, 숨을 거둘 때까지 아쇼까를 잊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아쇼까가 주고 간 상아반지를 보면서 어떤 날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산치동산에 쓰러져 산치 절의 스님들을 놀라게 한 적도 있었던 것이다. 아쇼까왕은 짐짓 분위기를 바꾸어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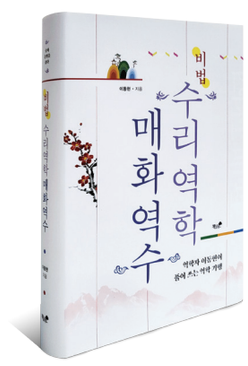
"베디샤데바께서는 잘 계시느냐? 내가 웃자인 부왕으로 갔을 때 나를 가장 많이 도와준 분이었지. 내가 옛 수나빠란따국으로 순행할 때 함께 가기도 했고. 그곳 숫빠라까 도시는 여기 빠딸리뿌뜨라 못지않게 무역이 활발한 곳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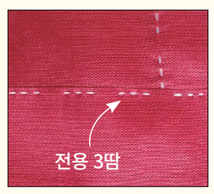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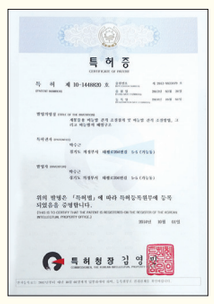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셨군. 내가 지은 사원 아쇼까라마가 성 안에 있지. 사원의 목갈리뿟다띳사 주지가 내게 '화려한 왕의 수레도 낡아가듯 몸도 또한 늙어간다'는 고타마 붓다의 말씀을 들려주었어. 그러니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나도 죽고 언젠가는 너희들도 죽겠지."

그날 밤, 두 남매는 아쇼까왕의 지시에 따라 대비별궁으로 갔다.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다르마 대비에게 인사도 드리고, 당분간 그곳에서 생활하기 위해서였다. 다르마 대비 역시 마힌다와 상가밋따가 왕궁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몹시 보고 싶어 했다.

아쇼까왕이 두 남매를 왕자별궁으로 보내지 않고 대비별궁으로 가라고 지시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였다. 하나는 왕실의 법도를 대비 밑에서 익히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바로 왕자별궁으로 갔을 때 다른 왕자들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왕자들 사이에도 적자와 서자, 신분의 차이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계속〉

다산민속사주
나는 역학이다
불교계의 역/학/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는 중국에서 기원하여
우리나라 불교계의 고승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역학비법입니다.
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숫자 운명을 품다)
사주공부 어렵게 하지마라, 이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다!!!
10만 명 실관, 17년 역학 강의, 〈나는역학이다〉 대표원장 이동현의 역학통변강의

1부터 9까지 아홉 가지 숫자를 사용하여 일진, 월운, 세운, 대운을 봅니다. 대단히 쉽고 간단하면서도 족집게처럼 명확하게 사주운세를 감명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 지음 | 550p | 180×253×41㎜
정가 ~~60,000원~~
판매가 54,000원(10% 할인)
◈ 책구입 & 동영상강의 신청 ◈
02)877-8771, 010-9687-0080
NAVER 나는 역학이다 검색

만복승복(가사)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 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전용 3땀

특허증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GmSoft GM since 2015 SOFT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